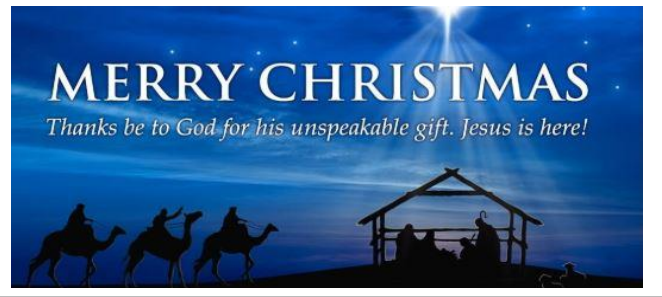


행함에는 >>>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사랑이 좋아 그 사랑 조금씩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오셨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FAITH IN ACTION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행함

12



2019

열 여덟번째 >>>

하나님과 팔 걸고 행하는  
아기 손 크기의 작은 이야기들



이달의 행함킹: 필리핀 청년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 52:7)”



12 월은 주님 오신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성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아름다와 보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선물이 있겠지요.  
간단한 초콜렛에서 부터 비싼 보석까지. 그 많은 선물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까요?  
성경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졌네요. 필리핀 청년들이 작고 예쁜 성경을 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성경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좋아하는 만큼 잘 읽을 것 같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받은 메일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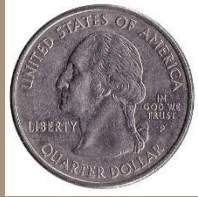
매일 학교를 방문하여 100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필리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권서인으로 헌신한 청년들입니다.  
청년 권서인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아이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듣고, 어떤 아이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륵까르륵 웃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모든 아이들이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 권서인들은 가슴이 떨린다고 합니다.  
작고 예쁜 성경을 받은 아이들마다 얼굴에 함박미소가 가득합니다. 필리핀의 말씀 부흥을 꿈꾸는 필리핀 청년 권서인들의 기도와 가슴은 오늘도 뜨겁기만 합니다.  
월 1 만원 후원으로 매월 5 명, 1 년 60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이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을  
옆에 두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되는 대로  
읽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어요.



# 작은 행함을 끊임없이...

성경만 좀 특이한 모임이 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다. 다른 성경 공부 모임과 달리 그 모임에서는 성경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한다.



50 센트  
고객이 물건을 잔뜩 사 놓고 돈이 모자라서 살 수 없다고 돈 가지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란다. 내게 그만한 돈은 있어서 대신 내 주었다. 좋은 일 참 쉽다. 겨우 50 센트로 서로 기분 좋아졌다.

## 목사라도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성도님이 교회에 참석하셨다. 서 있으면 안되는데 예배 찬양 시간에 일어서셨다. 우리 교회는 첫 찬양 시간에는 모두 일어난다. 그냥 앉아서 하시라고 눈치를 주는 데도 예배에 자세를 무척 중요시하는 그 분은 그냥 서 계셨다.

보다 못해 목사님이 강제로 주저 앉히셨다. 그러더니 그 분이 혼자 앉는 것이 이상할 까봐 목사님도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계셨다. 목사님도 목사로서 그 분 못지 않게 예배 자세를 중요시하신다. 그런데도 목사 내려 놓고 앉아 버리신다.

## 카톡으로

그녀는 몇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친구들에게 신앙의 글을 보낸다. 내용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읽는다.

배달부들을 위하여 겨울은 배달부들에게 최악의 달이다. 우리는 한번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사람들은 설 새 없이 차와 집 사이를 들락거려야 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J가 문밖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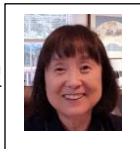
## 원손이 모르게 >>>



# 하나님의 은혜

## 라엘을 위한 기도

-유인영기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라엘 곁에 계시어 라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물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힘이 들 때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중보 기도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 라엘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그 영혼에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라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새 힘을 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라엘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런 라엘을 지켜 보는 저희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율수와 믿음이와 키엘에게 굳건한 믿음과 특별한 건강 주시어서 라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 가서 우리 라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 톡 쏘지 않는 교회

오래 전 한명숙 사모님의 고백이 기억난다. "우리 교회는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아 좋아요"

맞는 말이다. 우리 교회에서 실수는 애교다. 화면에 순서가 바뀐 찬양이 떠 올라도 다 싱긋 웃고 만다. 그 외의 실수도 대부분 허허 웃고 만다.

"뭐가 중요하니?"

까짓거 천국 지옥 나뉘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그 것 하나는 확실히 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천국 보내려 했는데 교인들 먹어야 할 점심밥 밥술 시작 버튼 누르지 않아 늦게 식사 시켰으니 지옥가라." 하실 분은 전혀 아니시라는 것.

보통 실수 다음에는 톡 쏘임을 당한다.

"왜 푹바로 안해!"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톡 쏘임을 당할 일이 없다. 아니 가끔씩 톡 쏘임을 당하기도 한다. 간식 시간에 콜라를 마실 때 허에.



# 선교 소식: 사우스 아프리카-2- 딸 아이가 보고온 아프리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환경이 천국과 지옥이라다. 한 쪽은 귀족처럼 살고 한 쪽은 동물처럼 살고 있단다. 지옥같은 곳에 버려진 아이들을 천국같은 곳에서 데려다 기른다고 한다. (지난 호에서)

안다. 몸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왔지만 마음은 아직 지옥에 있음을. 몸은 늪에서 비옥한 땅으로 건져 왔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아직 늪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딸은 아프리카까지 날아갔다. 아빠 닮아서 너무 마음이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마음에 상처를 깊게 입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딸은 매년 그런 아이들을 매년 찾아 다닌다. 돌아올 땐 한바가지 눈물을 쏟아가면서.

울해는 좀 다르긴 하다.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아프긴 아팠지만 좀 더 성숙한 여성으로 아이들을 찾았고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온 것이다.

그 찢겨진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무엇으로 달래 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좀 더 성숙하게 나누어주고 온 딸, 이제 정말 아줌마가 된 모양이다. 아직 대학생인데.



## 목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에서는 신교지 한글테색을 선택해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금수저

금수저란 돈 많은 부모

덕분에 호화호식하는 세대를 말한다.

금수저 또는 흙수저가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고난 운명이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라진다.

그 결과는 금수저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흙수저가 하늘 높이 오를 수도 있다.

세계 역사에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행적과 영향력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없이 인생의 비밀을 찾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신다.



▲사우스 아프리카  
저 황량한 동네에 그리스도의 봄이  
깃들기를



### 목장과 선교지

선교지	담당자	선교사
과테말라	김양중	김경택
우간다	강 샘	조이선교회(김진희)
가나	안예립	Chris Insaideo
이집트	구민희	탁수연
탄자니아	노푸른	조병훈
Haiti	강요한	Philipson & Kelsea Georges
CEF		황의정
쿠바		김현진, 장경순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선교지와 목장을 위해 특별기도를 합니다.

### 이달의 선교 기도제목

우간다: 김진희선교사

목자: 강샘, 강수잔

- 남아공 사역(신학교 강의/연구/장애 학교 지원)
- 직업학교 운영
- 더 많은 수호천사를 위해
- 아프리카 인근 지역 사역
- 김진희선교사 가정과 조이 선교단체를 위해서





# 여기 은공 마음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기 예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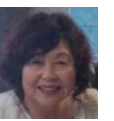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광야 >>>

-강수잔기자-

-광야에 나가야 만나를 맛보지.



삶의 굴곡, 그런 것들이 참 싫다.  
그냥 안정되게, 불편함, 불안,  
그런 것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면  
편안은 독이 된다. 머물러서도 안되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

정신없이 내몰리고 위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맛난 만나를 먹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만나로 유지된  
삶으로 새 땅을 차지하고 새 삶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나가자, 광야로. 나가서 맛보자. 진정한  
만나를...

## 공지 사항

- 크로마하프 연주단원. 초보자 환영
- 제 2기 행함 기자 교실 수강생.
- 신앙일기 쓰기 회원 모집



14640 Soucy Pl.  
Centreville, VA 20120  
703)625-3979

## 편집 후에

-성탄이 있는 달이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마음을 담았다.

-분에 넘치는 후원금들을  
받았다. 액수도 후원의  
마음도 고맙기 그지 없다.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받아  
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다.  
문득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서 정신이 번쩍든다.  
땅속, 아니 은행에 묵혀 둘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사용해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

고급 프린터를 사서  
행함지를 인쇄해 카톡에  
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볼까?

-행함을 위한 기도 제목  
행함 잡지사 설립  
저를 포함해 함께 일하시는  
편집인, 기자님들 모두  
정직원이 되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아래에  
있는 제 웹사이트에 가서서  
물건을 구입해 주시면 그  
꿈이 성큼 앞으로 다가  
옵니다.

## VIP 초청하기 딱 좋은 날

다음 주일은 Thanksgiving Sunday 입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VIP 분들이 1년에 3번은 교회에 간다고  
하죠. Easter Sunday, Thanksgiving  
Sunday 그리고 Christmas Sunday 는  
교회에 가는 날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Thanksgiving Sunday 는 VIP 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아주 딱 좋은 날입니다.  
그날 VIP 분들이 오시면 무엇을 들려드릴까  
생각하다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것 한가지 씩을 들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후에 정민규  
목자님께서 한 해동안에 감사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잘 편집해서  
Thanksgiving Sunday 에 오시는 VIP 분들에게  
보여 드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보여드릴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자기들과 다른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본다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과 감사의 삶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 분으로  
인하여 생긴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기쁨과 감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눌 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나에게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나누어 봅시다.

## 은혜공동체교회

Service & Meeting (예배 안내)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1: 30pm

후원  
김복성  
임재철

발행인: 안형준목사  
편집인: 김양중/장샘  
기자: 유인영/ 이유진/ 강수잔

[www.samguitar.net](http://www.samguitar.net)

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이 사이트로 가세요.  
가시면 아마존 광고가  
있어요. 아마존 광고에  
들어가셔서 물건 구입해  
주시면 수익금이 행함으로  
들어 옵니다.